

한알몸짓을 통한 本草의 研究方法 제안

이정원*·김경철**·박상환***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대한의료기공학회

大韓醫療氣功學會

ABSTRACT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Herb Through Hanalmomjit(한알몸짓)

Jeong Won Lee* · Kyung Chul Kim** · Sang Hwan Park***

* · ** :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 : Departmen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Qi, in ancient east Asian Philosophy and medicine, was the quintessential concept symbolizing material origin of the world. It was considered as the original matter of the world, and the genesis, development and extinction of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was explained through the movement of Qi.

Despite its importance, the interpretation of Qi has brought about various bifurcations in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It is comprehended either as ideal concept, or as actual entity. Also, there exists synthetic idea of considering both sides of Qi. These ideas results from obscure understanding based on textual interpretation apart from actual experince.

When experincing Qi through discipline, however, man can understand Qi concretly and actually and even grasp the explanation of the cosmos and life. One problem of Qi discipline was that it couldn't ascend the stage of subjective experience. Now, with the method of 'Hanalmomjit', a developed form of zifadonggong(自發動功), I could reach coherent results to offer the foundation of objective understanding of Qi.

The testees, disciples of Hanalmomjit, could express the characters of herbs in their Qigong actions, and the expression was meaningful and coherent to be considered as expressing the effects described in the classics of herbalogy. This result comes from the capacity of grasping external Qi-status, not only expressing the internal communication of jingluo(經絡) in Hanalmomjit.

Keyword : Hanalmomjit(한알몸짓), herb, herbalogy, Qigong

I. 서론

素問 調經論에서는 人之所有者 血與氣耳 라 하여 氣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素問六節藏象論에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이라고 하면서 氣의 運動과 變化로 生命活動이 發現되고 있음을 說明하였다.

이처럼 氣는 東方 古代 및 中世 哲學에서 世界의 物質의 始原을 표시한 概念이다. 氣를 世界의 始原으로 看做하고 氣의 運動으로 人間과 하늘, 땅 그 밖의 모든 事物의 發生, 發展, 消滅 科程을 說明하였다.¹⁾

이러한 氣는 韓醫學의 가장 基礎的인 理論이면서, 同時에 가장 論難이 많은 것이다. 氣를 觀念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實際的인 物質의 概念으로 理解하려는 부류도 있으며, 이 둘을 아우르며 觀念과 物質의 複合의 概念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結果가 나오는 것은 氣를 實際로 體驗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漠然히 氣를 抽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抽象은 先人들이 남겨 놓은 여러 文獻들을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氣를 類推한다. 그러다 보니 文獻들을 어떻게 解析하고 어떻게 理解하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結果를 내게 된다.

이에 修行이 강조된다. 修行은 실제로 氣를 體驗하게 해주며, 그것을 통

해 이 宇宙와 生命을 說明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修行은 개개인의 主觀的 體驗에 그치고 그것을 客觀化 시키려는 努力을 하지 않다 보니 客觀化 된 結果를 이끌어 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筆者는 汗發功(自發動功)을 利用하여 本草를 表現하는 實驗을 하였으며, 상당부분 共感할 수 있으며 一貫性이 있는 結果를 내어 이에 發表하고자 한다.

II. 實驗方法

1. 藥材

藥材는 (주)금강제약에서 求入한 蒼朮, 陳皮, 厚朴, 甘草 4가지 藥材를 사용하였다.

2. 실험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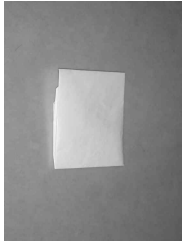
실험대상자는 생명빛 연구회의 수련 방법으로 4개월째 수련을 하고 있으며, 위 4가지 藥材에 대한 情報가 전혀 없는 豫科 2학년생 男女 各各 2명씩 4명으로 하였다.

3. 實驗方法

實驗藥材를 <그림1>과 같이 속의 內容物을 알 수 없게 종이로 봉한 뒤, <그림2>와 같이 가로 90mm, 세로 90mm, 높이 110mm의 종이상자 속에 넣어 실험대상자들이 內容物을 알 수 없게 二重 處理 하였다. 任意의 順序대

1) 이명영외 : 東醫學辭典, 서울, 1989, 여강출판사, P.120

로 實驗藥材를 箱子에 넣어 실험대상자가 그 藥材를 느껴 한알몸짓으로 表現하게 하였으며, 각자의 느낌을 整理하였다.



<그림 1>



<그림 2>

Ⅲ. 실험결과

實驗者1·實驗者2는 男學生이며, 實驗者3·實驗者4는 女學生이다.

1. 蒼朮

實驗者1 등근원을 그리면서 퍼지는 느낌, 가슴썸에서 등뒤까지 손이 밀려나가는 느낌



實驗者2 中上 부위에서 시작하여 위와 바깥쪽으로 조금 강한 느낌으로 뻗어 나가는 느낌. 조금 엉키는 듯 하다가도 곧 풀리고 밖으로 뻗어 나간다.



實驗者3 가슴쪽, 또는 그 이상에서 등글게 돌다가 가끔 밖으로 휘젓는 느낌. 바깥쪽 위쪽으로 젓혀지는 느낌



實驗者4 위쪽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



2. 陳皮

實驗者1 손이 약간 따뜻하면서, 가슴썸에서 밖으로 퍼져 나가는 느낌



實驗者2 중간 부위에서 맴돌다가 밖으로 뻗어나 이내 곧 원형으로 감겨들어온다. 물결을 타는듯한 기분으로 율동을 계속하고,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 나가는 느낌과 도는 느낌이 같이 오고 조금 따뜻하다.



實驗者3 중간쯤에서 물결의 출렁거림 같은 부드러운 곡선.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다시 안으로 흐르기도 함. 허리 이상 차 있는 따뜻한 물의 수면을 쓰다듬는 느낌.



實驗者4 위로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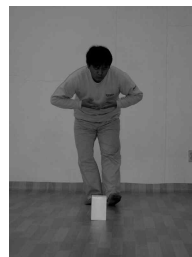


3. 厚朴

實驗者1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변을 훑는 느낌



實驗者2 전체적으로 대칭적 원운동의 성향이 강하다. 가끔 아래로 내려오다가 중앙으로 다시 돌아와 대칭운동을 지속한다.



實驗者3 소용돌이 치는 느낌. 위로 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감.



實驗者4 아래로 향하면서 부드럽게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



4. 甘草

實驗者1 중간쯤에서 물컹물컹하면서 손안에 둥그란 무엇인가 있는 느낌



實驗者2 중하부위에서 작용하고 조금 뜨는 듯 하다가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옆으로 퍼지는 느낌도 있었다.



實驗者3 따뜻하면서 말랑말랑한 느낌. 가슴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왔다갔다 하는 물이든 큰공을 만지는 느낌



實驗者4 아래로 향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등 두루 두루 미치는 느낌.



IV. 考察

1. 한알몸짓

생명빛 연구회는 최순돈 韓醫學博士를 위시해서 韓醫師와 韓醫大生이 主

軸이 된 修練團體이다. 생명빛 수련 1 단계는 머리공부와 몸공부로 나뉘어진다. 몸공부는 숨·춤·춤을 주 수련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숨은 呼吸法이며, 춤은 별음 즉 소리 운영이며, 춤은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다. 머리 공부로는 冥想과 思想研究를 하고 있다.

춤은 몸달굼과 몸다스림으로 나뉘는데, 몸달굼은 몸당기와 몸굴리기로, 몸다스림은 몸짓과 몸씀으로 되어있다. 몸짓은 한알·한얼·한울·한울몸짓의 4종류가 있으며 이중 한알몸짓이 이번 實驗에 사용된 몸짓이다.

한알몸짓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自發動功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自發動功이란 말은 옛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62년 北京의 원로 중의사 胡耀貞이 保健氣功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에 새로운 氣功用語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명칭이다. 自發動功은 다른 動功처럼 미리 짜여진 格式과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색다른 功法이다. 意識적으로 어떤 動作을 이끌지 않거니와 일어나는 動作을 意識적으로 멈추지도 않는다. 이러한 自發動功을 한때 邪術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氣功動功의 한 功法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²⁾

하지만 自發動功과 한알몸짓은 약간

2) 이동현 : 건강기공, 서울, 정신세계사, 1990, pp.260~261

의 차이를 보인다. 自發動功은 靜功으로 內氣가 發動하여 經絡을 따라 旺盛하게 흐르기 시작할 때 어디선가 그 흐름이 저지당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外動이 일어난다고 한다.³⁾ 말하자면 自發動功은 經絡의 막힌 곳을 뚫어 주는 것, 즉 內的 상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알몸짓은 內的 상태뿐만 아니라 外部的 存在의 상태까지 把握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모든 存在는 氣로서 存在하고 그 氣는 共鳴을 일으키고 疏通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알몸짓으로는 經絡의 疏通與否, 內的狀態는 물론 外部的 存在의 氣의 狀態를 把握할 수 있다.

2. 本草의 起源

淮南子の 修務訓에 의하면 “神農은 民들에게 五穀의 播種法을 가르치고 土地를 視察하여 燥濕 肥瘠 古下을 가려주며, 百草의 滋味와 艸木의 甘苦등을 가려서 民들에게 居處할 곳을 알게 하였으며, 1日에 70毒을 만나 이로 인하여 醫方이 성립되었다”⁴⁾고 하였다.

宋代 劉恕의 通鑑外紀에 의하면 “民이 病에 걸려도 藥石을 알지 못하였다. 炎帝가 비로소 草木의 滋味를 맛보면서 1日에 12毒을 만났으나 神妙하게 中和시키고, 드디어 方書를 만들어서 民의 疾病을 治療케 하여 醫道가

3) 이동현 : 前揭書 p.262

4) 淮南子 修務訓 神農 乃始教民 播種五穀 相土地 宜燥濕肥瘠高下 嘗百草知滋味 水泉之甘苦 令民之所辟就 當此之時 一日而遇七十毒 由此醫方興焉

成立되었다.”⁵⁾고 하였다.

本草라는 紀錄을 歷史적으로 考察하여 보면 中國의 上古 神農時代로부터 사용하였다고 推定되고 있다. 하지만 文明의 發達과 함께 文字가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로 本草라는 文字가 文獻上에 제일 먼저 紀錄된 곳은 班固의 著 漢書에서부터였다.⁶⁾ 이를 根據로 申佶求是 本草라는 文字는 武帝 이후 成帝에 이르는 100年 사이에 成立되었는데, 그 시대에는 方士가 말하는 藥과 對稱하였으나, 仙道가 衰退하고 道教가 盛行함에 따라 本草의 意義는 藥品을 대신하게 되었고, 後世에 와서는 藥品에 관한 書籍을 대신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⁷⁾

현재 많은 學者들이 淮南子나 通鑑外紀의 神農 紀錄을 단순히 神話로만 여기고, 실제로 本草는 偶然한 經驗의 蓄積으로 이루어졌다고 主張하고 있다. 全國韓醫科大學의 本草教材로 사용되고 있는 臨床本草學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번 實驗은 本草의 起源이 충분히 靈驗의이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偏向되지 않은 視覺으로 本草의 起源에 관한 研究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3. 最近 本草 研究 傾向

漢藥을 臨床에 應用하고 氣味論에 의해 研究하여 온 歷史는 數千年이나 되지만, 現代 藥理學의 方法을 이용한 研究는 20세기 以後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以前에는 中國에서도 漢藥 研究者들이 많지 않았으며 주로 化學的인 研究가 이루어졌다. 漢藥 藥理에 대한 研究는 두 가지의 方法이 있다. 하나는 漢藥을 植物 또는 보통 天然藥物로 생각하고 傳統的인 經典式 方法으로 研究를 進行하여 化學成分을 分離하며 그 活性部位를 밝히고 構造를 정하며 人工合成도 하는 것이다. 以後에 藥效學, 藥動學, 毒리학의 研究를 進行하고 最後에 臨床實驗研究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研究方法은 지금에도 상당히 많이 應用되고 있다. 다른 한가지 方法은 최근 二三十年 동안 점차 發展되어 온 것으로 韓醫學의 인 觀點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藥物과 複合處方에 대하여 研究하는데, 韓醫學 理論에 따라 臨床에서의 治療效果와 關聯지어 現代自然科學的인 方法으로 研究하는 것이다.⁹⁾

하지만 李載熙는 漢藥을 化學的 實驗과 分析을 하여 그 成分을 가려내어 化學式이나 構造式을 決定하고, 이것을 動物實驗에 의하여 藥物의 藥理 藥能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더라도 韓醫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主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9) 김호철 :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1, pp.15~20

5) 劉恕 通鑑外紀 民有疾病 未知藥石 炎帝始味 草木之滋 嘗一日而遇十二毒 神而和之 遂作方書 以療民疾 而醫道立矣.

6) 李尙仁 本草學 學林社 1986 pp.2~4

7)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pp.11~12

8) 辛民教編著 :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p.22

重要한 漢藥中에는 그 主成分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많다. 둘째, 主成分이라는 것이 藥物中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주요한 藥理作用을 나타내는 質的인 成分이 더 重要하며, 藥理的으로 作用價値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從來에 이른바 主成分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檢査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成分이 判明되어 있더라도 成分과 生藥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生藥은 成分을 가지고 대표할 수 없다. 넷째, 成分이 같더라도 다른 것으로 代置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같은 Berberine을 함유한 大黃, 龍膽, 黃柏, 黃蓮등은 모두 作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藥으로 代置할 수 없다.¹⁰⁾ 以上과 같은 理由로 그는 부득이 古典的인 思考方式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淸나라의 唐宗海는 本草問答에서 “西洋의 解剖學은 단지 層析만을 알 뿐 經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단지 有形的 構造만을 알 뿐 氣化作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우리 中國의 요즘 醫師와 비교해도 愚劣의 차이가 있거늘 만약 옛 聖人이 지은 內徑과 本草經에 比較한다면 西洋 醫學은 훨씬 못 미친다 하리라”¹¹⁾라고 하였는데 생각해 볼만하다 하겠다.

이에 筆者는 李載熙와 唐宗海의 意見

에 同調하는 바이며, 여기에 修行을 통한 直接的 體驗의 重要性을 더하고자 한다.

4. 本草의 性能¹²⁾¹³⁾

藥物은 모두 一定한 性能을 갖추고 있는데, 各種 藥物의 性能을 把握하여 起源을 歸納해 보면 藥物의 四氣와 五味 그리고 升降浮沈·歸經·補瀉, 또는 有毒과 無毒등의 주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1) 四氣

四性이라고도 부르는데, 즉 이것은 寒·熱·溫·涼의 4種의 藥性を 말한다. 藥性的 寒熱溫涼은 病情的 寒熱과 相對되는 말이다.

寒涼의 性を 지닌 藥物은 흔히 淸熱瀉火 解毒등의 作用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통 陽症 熱症에 應用한다. 또, 溫熱의 性を 지닌 藥物은 흔히 溫陽 救逆 散寒등의 作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통 陰證 寒證에 응용한다.

이밖에도 平性を 지닌 藥物이 있는데, 이는 性質이 비교적 부드러운 藥物)서, 그 중에는 微寒이나 微溫의 性を 지닌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四氣내에 속하는 것이다.

2)五味

10) 李載熙 : 藥理·藥能의 臨床應用, 서울, 學林社, 1985, pp.21~23

11) 唐宗海 : 本草問答 第2問 “西洋剖視 只知層析 而不知經脈 只知形迹 而不知氣化 與中國近醫 互有愚劣 若與古聖內徑本草經較之 則西洋遠不及矣”

12) 辛民教 : 前揭書 pp.100~117

13) 申天浩 : 問答式 本草學, 서울, 成輔社, 2001, pp.24~35

五味란 藥物의 酸苦甘辛鹹의 5種의 不同한 味를 말한다. 이러한 五味는 舌感에 의해서 辨別될 수가 있다.

藥物에는 이 五味를 제외하고도 또한 甘味라는 것이 있는데, 그 藥味가 매우 明顯하지 못하기 때문에 前人들은 그것을 甘味에 歸屬시켰던 것이다.

임상실천의 發展에 따라서, 또한 概괄적으로 연구 정리된 五味를 통해서 用藥 이론이 형성되었으며, 그 속에 含蓄된 意味는 곧 직접적인 舌覺을 超越하게 된 것이다. 즉, 後人들은 이러한 이치를 응용해서 收澁作用을 지니고 있는 藥物을 酸味로 統稱하고, 軟堅作用을 지닌 藥物을 鹹味로 統稱하는 등등이다.

그래서 어떤 藥物들은 本草 記載와 실제 口覺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3) 升降浮沈

升降浮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즉 升이라는 上升을 말하며, 降이란 下降을 말하고, 浮는 外行하여 發散한다는 뜻이며, 沈은 內行하여 泄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개 升과 浮, 沈과 降의 경향은 유사한데, 升浮에 속하는 藥물은 일반적으로 上行하며 外외로 향하여 升陽發表 散寒 涌吐등의 작용을 하며, 沈降에 속하는 藥물은 일반적으로 下行하며 內로 향하여 潛陽 降逆 清熱 滲濕 瀉下등의 작용을 한다.

이상의 것은 升降浮沈의 일반적인 원칙이며, 漢藥의 운용에 있어서는 復方중에 흔히 사용한다. 그러므로 升降浮沈의 작용은 隨證에 따라서 配合, 또는 炮制의 변화에 의하여 다르다.

그리고 升浮의 작용이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沈降 약중에 있을 때는 이를 下降할수도 있고, 沈降작용이 있는 약도 역시 升浮의 작용을 하는 약중에 끼여 있을 때는 이에 따라 上升할 수도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藥性의 升降浮沈이 일정한 조건하에 있어서는 상호 변화할 수 있으며, 아주 불변하는 원칙이 아니다.

4) 藥物의 補瀉

疾病에는 寒熱과 陰陽이 있는 것 외에도 또한 반드시 虛와 實의 두가지 方面이 있다. 그리하여 藥물의 작용에 있어서도 補와 瀉의 두가지 方面으로 귀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개 元氣를 보조하여 그 쇠약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補라 칭할 수 있으며, 病邪를 제거해서 인체의 기능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瀉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藥物의 歸經

歸經이란 어떤 藥물이 어떤 經 혹은 어떤 經들의 病變에 대해서 明顯하거나, 혹은 특수한 선택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他經에 대해서는 작용이 비교적 적거나 혹은 작용이 없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藥물으로써

治病할 수 있는 적응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들은 모두가 先인들이 오랜 臨床經驗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先인들의 經驗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四氣와 五味는 藥物의 作用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升降浮沈과 歸經 이론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歸經이 비교적 많으며 各家들의 저서에의 記載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升降浮沈에 대한 藥物의 運用에도 보편적인 意義가 缺乏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臨床을 중심으로 客觀化시켜야 하며, 아울러 좀더 많은 研究와 整理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알몸짓은 이러한 연구와 정리의 새로운 방법으로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蒼朮, 陳皮, 厚朴, 甘草 考察¹⁴⁾¹⁵⁾¹⁶⁾

1) 蒼朮

起源] 菊花科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삼주 및 同屬近緣植物의 根莖

歸經] 脾胃의 2經

14) 辛民教 : 前掲書

15) 김형균外 : 漢藥의 藥理, 서울, 고려의학, 2000

16) 陸昌洙의 : 韓藥學II, 서울, 光明醫學社, 1992

效能] 燥濕建碑 去風濕

成分] 蒼朮의 약 1.5%는 精油이며, 精油의 20%는 독특한 香氣가 있는 atractylone (C₁₄H₂₈O)이다. 精油의 다른 구성 성분으로는 atractylol (C₁₅H₂₄O)이 있다.

2) 陳皮

起源] 芸香科에 속한 常綠小喬木인 귤나무 및 同屬近緣植物의 成熟果皮

歸經] 脾 肺의 2經

效能] 理氣建碑 燥濕化痰

成分] Hesperidin, 枸橼酸을 함유. Hesperidin은 酸 또는 酵素에 의해 Hesperetin, 포도당, 鼠李糖으로 加水分解된다. 果實중에는 枸橼酸, 精油 3.8%, 糖分 및 Vitamin C 등을 含有한다.

3) 厚朴

起源] 木蓮科에 속한 落葉喬木인 중국후박나무 및 일본후박나무의 樹皮혹 根皮

性味] 苦 辛 溫 無毒

歸經] 脾 胃 大腸의 3經

效能] 化濕導滯 行氣溫中

成分] alkaloid인 dl-N-norarmepavine, L(-)-N-norarmepavine이 함유되어 있다.

4) 甘草

起源] 豆科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甘草 및 同屬近緣植物의 根과 根狀莖

性味] 甘 平 無毒

歸經] 脾 胃 肺의 3經

效能] 補脾益氣 清熱解毒 潤肺止咳
調和諸藥

成分] 6-14%가 glycyrrhizin이다.
glycyrrhizin은 가수분해하면
glycyrrhetic acid 한분자와 glycuronic
acid 2분자를 생성한다.

6. 實驗結果 考察

이번의 實驗은 최대한 客觀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용물을 알 수 없게 二重 처리 하였으며, 또한 藥을 알더라도 藥性을 잘 알지 못하는 豫科生을 대상으로 하였다.

4名의 實驗者들의 結果를 綜合해보면 蒼朮은 中上層部에서 퍼지는 特徵이 있었다. 陳皮도 中上層部에서 퍼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물결의 출렁거림과 같은 부드러운 曲線運動의 特徵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厚朴은 주로 작용하는 부위가 아래라는 共通點이 있었으며, 甘草는 中焦에서 말랑말랑한 느낌을 가졌으며, 전체적으로 두루 미치는 느낌을 가졌다.

實驗結果로 보면 蒼朮, 陳皮는 升浮하는 性向을 가지고 있으며, 厚朴은 반대로 降沈하는 性向이 있으며, 甘草는 升降浮沈이 均衡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蒼朮의 퍼지는 中上焦로 퍼지는 것은 去風濕의 效能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蒼朮은 아래로 내리기보단 밖으로 퍼지는 힘으로 中焦를 열어주는 藥으로 볼 수 있다. 陳

皮의 特徵적인 느낌인 물결이 흐르는 듯한 曲線運動은 陳皮가 부드럽게 理氣시키는 것을 表現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厚朴은 아래로 내려가 작용하므로 脾胃 뿐만 아니라 大腸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導滯하는 效能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甘草에서 보인 中焦의 말랑말랑한 공같은 기운은 補中益氣를 나타내는 것이며, 두루두루 퍼지는 느낌은 調和諸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實驗結果는 實驗者의 數가 적어 客觀的인 結果로 받아 들이기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떤 共通된 패턴이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共感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한알몸짓은 어떤 대상의 氣的 상태를 施行者의 몸을 통해 表現하는 방식이다. 이 方法은 施行者의 몸상태, 修練程度, 施行할때의 空間과 時間에 따라 약간씩 差異가 충분히 날 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變數들을 모두 分析해 가면서 좀 더 客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이번 實驗結果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V. 結論

以上の 實驗으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한알몸짓은 自發動功과는 달리 經絡의 疏通與否, 內的狀態는 물론 外部的 存在의 氣的 狀態를 把握할 수

있다.

한알몸짓으로 표현된 本草는 상당부분 共感할수 있는 一貫성을 보였으며, 그 一貫성은 실제 本草學 古典에 있는 藥效를 說明할 수 있는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이후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험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VI.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명빛 연구회 소속 학생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VII. 참고문헌

1. 洪元植譯 : 黃帝內經素問, 서울, 전통문화연구소, 1993
2. 이동현 : 건강기공, 서울, 정신세계사, 1990
3. 이명영外 : 東醫學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1989
4. 安吉煥 編譯 : (新完譯)淮南子, 서울, 明文堂, 2001
5. 劉恕著 袁孝政註 : 劉子, 北京, 中華書局, 1985
6. 李尙仁 : 本草學, 서울, 學林社, 1986
7. 辛民教編著 :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8.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9. 辛民教編著 : 原色臨床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4.
10. 김호철 :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1
11. 李載熙 : 藥理·藥能의 臨床應用, 서울, 學林社, 1985
12. 唐宗海著 金俊錡譯 : 本草問答,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2. 申天浩 : 問答式 本草學, 서울, 成輔社, 2001
13. 김형균 外 : 漢藥의 藥理, 서울, 고려의학, 2000
14. 陸昌洙 外 : 韓藥學II, 서울, 光明醫學社, 1992